

## 경기 수원남부소방서, 2021년 화재통계 분석 결과 발표

기사입력시간 : 2022/01/17 [16:33:00]

경기 수원남부 유지형 기자

수원남부소방서는 2021년 관내(팔달구 및 권선구)에서 발생한 화재통계 분석 결과, 전년대비 화재건수 및 재산피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.

지난해 총 224건으로 18명(사망 5명, 부상 13명)의 인명피해와 2,268,576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.

전년과 비교하면 화재건수와 재산피해는 각각 20%(280건→224건), 4.0%(2,371,882천원→2,268,576천원) 감소했으며 인명피해는 0%(18명→18명)으로 동일하다.

화재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는 비주거 111(49.6%로 가장 많았고, 이어 주거 83건(37.0%), 차량 21건(9.4%), 기타(쓰레기 화재 등) 9건(4.0%) 순이었다.

원인별로는 부주의 97건(50.8%), 전기적요인 79건(38%), 기계적 요인 18건(7%) 순이며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부주의 화재(97건)를 세부 원인별로 살펴보면 담배꽂초 44.3%(483), 음식물 조리 21.6%(21건)가 다수 차지해 담배꽂초 및 음식물조리에 의한 화재가 높아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정훈영 서장은 “화재발생 통계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생활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, 주택화재 저감 등 화재예방 활동과 대면 또는 비대면 소방안전교육,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을 추진해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